



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JAMES 법무장관 제임스, 는 세금 유치권 공매를 중지하여 수천 명의 주택 소유자를 보호

Andrew M. Cuomo 주지사와 Letitia James 법무장관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뉴욕시의 연간 세금 및 물 유치권 공매를 중지하는 주지사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자신의 집을 지키는 것을 포함해 뉴욕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세금 및 물 세금 유치권 공매는 이러한 고난을 인식하여 5월에 지연되었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 소유자가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겪지 않도록 다시 연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조치는 뉴욕 주민들이 지속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입니다."

James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는 지금, 세금 유치권 판매는 뉴욕 주민, 특히 유색 주민사회에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웁니다. 가능한 한 사람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Cuomo 주지사 및 그의 팀과 협력하여 이 압박이 심한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유치권 공매에 이러한 주택을 포함하면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고 대부분 유색인 지역사회의 주택 소유주들은 이 기간에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